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날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점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섶벌\* 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뿔도 쉼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 -

- \* 가지취: 산지의 맑은 숲속에서 자라는 참취나물.
- \* 금점(金店)판: 예전에, 주로 수공업적 방식으로 작업하던 금광의 일터.
- \* 섶벌: 나무 섶에 집을 틀고 항상 나가서 다니는 벌.
- \* 머리오리: 날날의 머리털.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리피리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피—르 날리리.

보리피리 불며  
꽃 청산(靑山)  
어린 때 그리워  
피—르 날리리.

보리피리 불며  
인환(人寰)\*의 거리  
인간사(人間事) 그리워  
피—르 날리리.

보리피리 불며  
방랑의 기산하(幾山河)  
눈물의 언덕을  
피—르 날리리.

- 한하운, 「보리피리」 -

\* 인환: 인간의 세계.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당신과 나와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령 우리가 좋을 대로 말하는 것과 같이, 거짓 이별이라 할지라도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아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들어 가는 두 볼의 도화(桃花)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가 될까요.

회색이 되어 가는 두 귀밑의 푸른 구름이, 쪼이는 가을볕에 얼마나 바래서 백설(白雪)이 될까요.

머리는 희어 가도 마음은 붉어 갑니다.

피는 식어 가도 눈물은 더워 갑니다.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나도 희망의 바다엔 물결이 뛰놀아요.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은 알아요.

그러나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또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와요.

- 한용운, 「거짓 이별」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만년(萬年)을 짜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 넣고  
해 돋는 아침에 죽어 가리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거룩한 일월(日月)의 눈부신 모습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마음 가난하거니 입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나랴.

의(義)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  
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九天)에 사무침을 임은 듣는가.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솟이 되는 날까지  
그 솟이 되살아 다시 재 될 때까지

못 잊힐 모습을 어이하리야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 조지훈, 「맹세」 -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접동  
접동  
아우래비 접동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읍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 보라  
오오 불설위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 되던 오랩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 읍아가며 슬피 읍니다

- 김소월, 「접동새」 -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하고 누이동생의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가 오뚝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내어저었다. 갈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애 절로 눈이 감긴다.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굶고 등 뒤에 서격이는 떡갈나무 수풀 앞에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흰 나비처럼 여윈 모습 아슬러 어느 무형(無形)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 주는 건 비인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 동생의 가슴 우엔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우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한줌 흙을 헤치고 나즉—이 부르면 함박꽃처럼 눈 뜰 것만 같아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몄다.

- 김광균, 「수철리(水鐵里)」 -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큰 어둠 가운데 홀로 밝은 불 켜고 앉아 있으면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

한 포기 산꽃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위로이라

모두 빼앗기는 듯 눈뎛개 고이 나리면 환한 온몸은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燐光)\*

까만 귀뚜라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기쁨이라

파란 불에 몸을 사르면 짜늘한 이마 맑게 트이어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러움

기리는 별이라도 맘에 있다면 얼마나 한 즐거움이라

- 박용철, 「짜늘한 이마」 -

\* 인광: 빛의 자극을 받아 빛을 내던 물질이, 그 자극이 멎은 뒤에도  
계속하여 내는 빛.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첩첩 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앞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갱(坑) 속 같은 마을.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앓아 이숙토록 창문은 모과(木瓜)빛입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우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짙단, 짙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발은 기침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떼를 지어 읍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읍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月暈)\*.

- 박용래, 「월훈」 -

\* 월훈: 달 언저리에 둥그렇게 생기는 구름 같은 허연 테.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무엇이랴 이름하리 그를?  
 나의 영혼 안의 고운 불,  
 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  
 나의 눈보다 값진 이,  
 바다에서 솟아올라 나래 떠는 금성(金星),  
 쪽빛 하늘에 흰 꽃을 달은 고산 식물,  
 나의 가지에 머물지 않고  
 나의 나라에서도 멀다.  
 홀로 어여뻐 스스로 한가로워— 항상 머언 이,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오로지 수그릴 뿐.  
 때 없이 가슴에 두 손이 여미어지며  
 굽이굽이 돌아 나간 시름의 황혼 길 위—  
 나— 바다 이편에 남긴  
 그의 반임을 고이 지니고 견노라.

- 정지용, 「그의 반」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침묵할 것.

또는 꽃에 대하여  
또는 하늘에 대하여  
또는 무덤에 대하여  
서둘지 말 것  
침묵할 것.

그대 살 속의  
오래전에 굳은 날개와  
흐르지 않는 강물과  
누워 있는 누워 있는 구름,  
결코 잠깨지 않는 별을

쉽게 꿈꾸지 말고  
쉽게 흐르지 말고  
쉽게 꽃피지 말고  
그러므로

실눈으로 볼 것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을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을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

- 강은교, 「사랑법」 -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학이로다

박모(薄暮)\*의 수묵색 거리를 가량이면  
슬픔은 멍인 양 목줄기에 맺히어  
소리도 소리도 낼 수 없구나

저마다 저마다 마음속 적은 고향을 안고  
창창한 담채화 속으로 흘러가건만  
나는 향수할 가나안의 복된 길도 모르고

꿈 푸르른 솔바람 소리만  
아득한 풍랑인 양 머리에 설레노니

깃은 남루하여 올빼미처럼 चु고  
자랑은 호을로 높이고 슬프기만 하여  
내 타고남이 차라리 욱되도다  
어둑한 저잣가에 지향없이 서량이면  
우러러 밤서리와 별빛을 이고  
나는 한 오래기 갈대인 양

— 마르는 학이로다

- 유치환, 「학」 -

\* 박모: 해가 진 뒤 어스레한 동안. 땅거미.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 산 저 새 돌아와 우네  
 어둡고 캄캄한 저 빈 산에  
 저 새 돌아와 우네  
 가세  
 우리 그리움  
 저 산에 갇혔네  
 저 어두운 들을 지나  
 저 어두운 강 건너  
 저 남산 꽃산에  
 우우우 꽃 피러 가세  
 산아 산아 산아  
 저 어둠 태우며  
 타오를 산아  
 저 꽃산에 눈부시게 깃쳐 오를 새하얀 새여  
 아아, 지금은 저 어두운 빈 산에 갇혀  
 저 새 밤새워 울고  
 우리 어둠 속에  
 꽃같이 아픈 눈 뜨고 있네.

- 김용택, 「저 새」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욱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 윤동주, 「참회록」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뉘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 항아리.

아침 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원(永遠)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畏敬)을  
 알리라

아침 저녁  
 네 머리 위 쇠 항아리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久遠)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憐憫)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아모리며.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적산 가옥\* 구석에 짙막한 층층계……  
 그 이 층에서  
 나는 밤이 깊도록 글을 쓴다.  
 써도 써도 가랑잎처럼 쌓이는  
 공허감.  
 이것은 내일이면  
 지폐가 된다.  
 어느 것은 어린것의 공납금.  
 어느 것은 가난한 시량대\*.  
 어느 것은 늘 가벼운 나의 용전.  
 밤 한 시, 혹은  
 두 시. 용변을 하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아래층은 단칸방.  
 온 가족은 잠이 깊다.  
 서글픈 것의  
 저 무심한 평안함.  
 아아 나는 다시  
 층층계를 밟고  
 이 층으로 올라간다.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곡예사들은 지쳐 내려오는데……)

나는 날마다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에 놓인  
 이 짙막한 층층계를 올라와서  
 셋까만 유리창에  
 수척한 얼굴을 만난다.  
 그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아버지>라는 것이다.

\*

나의 어린것들은  
 왜놈들이 남기고 간 다다미방에서  
 날무처럼 포름쪽쪽 일어 있구나.

- 박목월, 「층층계」 -

\* 적산 가옥(敵産家屋): 적국이 물러가면서 남겨 놓은 가옥.  
 \* 시량대(柴糧代): 땀감과 식량을 마련할 비용.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의 입을 거치면 옹가 강가가 되고 자느냐 사느냐라는 말은 장가 상가가 된다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밤낭구 잎은 푸르딩딩해지고 밭에서 일 하는 사람을 보면 일 항가 땡가 하기에 장가 가는가라는 말은 장가 강가가 되고 애기 낳는가라는 말은 아 낳가가 된다

장가 낳가 당가 량가 망가가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에는

한사코 ○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남한테 해꼬지 한 번 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  
일생을 흙 속에서 산,

무장 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으로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 주신다  
머리가 발에 닿아 둥글어질 때까지  
C자의 열린 구멍에서는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어머니는 한사코  
오손도순 살어라이 당부를 한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 이대흠, 「동그라미」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판잣집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내려쫓이던 햇살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 구상, 「초토의 시 1」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흔들만 깜박이는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에  
아름다움은 새벽의 창을 열고  
우리들 가슴의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다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이제 밝아 올 아침의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 광재구, 「새벽 편지」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떨어져 나간 대문짝  
안마당에 복사꽃이 빨갳다  
가마솥이 그냥 걸려 있다  
별절게 녹이 슬었다

잡초가 우거진 부엌 바닥  
아무렇게나 버려진 가계부엔  
콩나물값과 친정어머니에게 쓰다 만  
편지

빈집 서넛 더 더듬다가  
폐광 올라가는 길에서 한 늙은이 만나  
동무들 소식 물으니  
서울 내 사는 데서 멀지 않은  
산동네 이름 두어 곳을 댄다

- 신경림, 「폐촌행(廢村行)」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날로 기우뚱해 가는 마을 회관 옆  
청솔 한 그루 곳곳이 서 있다.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집집의 새앙쥐까지 깨우던 회관 옆,  
그 동치의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그 회관 들창 거덜 내는 댕바람 때마다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  
거기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천등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장과 함께.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그러나  
저기 난장 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  
그 청솔 바라보는 몇몇들 보아라.

그때마다, 삭바람마저 빗질하여  
서러움조차 잘 걸러 내어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솔 보아라.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까막까치 얼어 죽는 이 아침에도  
저 동녘에선 꼭두서니\* 빛 타오른다.

- 고재중, 「세한도」 -

\* 꼭두서니: 꼭두서닛과의 여러해살이 덩굴풀. 어린잎은 식용하고 뿌리는 붉은색 염료로 씀.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쇄한 박수근 화백 그림을 하나 사다가 걸어놓고는 물끄러미 그걸 쳐다보면서 나는 그 그림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보곤 하는데 원래 제목인 ‘강변’도 좋지마는 ‘할머니’라든가 ‘손주’라는 제목을 붙여보아도 가슴이 알알한 것이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는 나도 모르게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가 술을 드시러 저녁 무렵 외출할 때에는 마당에 널린 빨래를 걷어다 개어놓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 빨래를 개는 손이 참 커다랐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장엄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성자의 그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는 멋쟁이이긴 멋쟁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또한 참으로 궁금한 것은 그 커다란 손등 위에서 같이 꿈지락거렸을 햇빛들이며는 그가 죽은 후에 그를 쫓아갔는가 아니면 이승에 아직 남아서 어느 그러한, 장엄한 손길 위에 다시 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른 빨래를 개며 들었을지 모르는 삐걱새 소리 같은 것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궁금한 일들은 그러한 궁금한 일들입니다. 그가 가지고 갔을 가난이며 그리움 같은 것은 다 무엇이 되어 오는지…… 저녁이 되어 오는지…… 가을이 되어 오는지…… 궁금한 일들은 다 슬픈 일들입니다.

- 장석남, 「궁금한 일-박수근의 그림에서」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를 쫓아온 눈발 어느새 여기서 그쳐  
 어둠 덮인 이쪽 능선들과 헤어지면 바다 끝까지  
 길게 걸쳐진 검은 구름 때  
 헛디더 내 아득히 헤멘 날들 끝없이 퍼덕이던  
 바람은 다시 옷자락에 와 붙고  
 스치는 소매 끝마다 툭툭 수평선 끊어져 사라진다

사라진다 일념도 세상 흐린 웃음소리에 감추며  
 여기까지 끌고 왔던 사랑 헤진 발바닥의  
 무슨 감발에 번진 피얼룩도  
 저렇게 저문 바다의 파도로서 풀어지느냐  
 폐선된 목선 하나 덩그러니 뜬 모래벌에는  
 무엇인가 좁고 있는  
 남루한 아이들 몇 명

굽은 갑\*에 부딪혀 꺾어지는 목소리가 들린다  
 어둡고 외진 길목에 자식 두엇 던져 놓고도  
 평생의 마음 안팎으로 띄워 올린  
 별빛으로 환해지던 어느 밤도 있었다.  
 희미한 빛 속에서는 수없이 물살 흘러지면서  
 흘러놓은 인광만큼이나 그리움 끝없고  
 마주 서면 아직도  
 등불을 켜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돛배 한 척이 보인다  
 - 김명인,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

\* 갑(岬): 바다 쪽으로, 부리 모양으로 뾰족하게 뻗은 육지.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바지랑대\* 끝 더는 꼬일 것이 없어서 끝이다 끝 하고  
 다음 날 아침에 나가 보면 나팔꽃 줄기는 허공에 두 뺨은  
 더 자라서  
 꼬여 있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은 아침 구름 두어 점,  
 이슬 몇 방울  
 더 움직이는 바지랑대는 없을 것이었다  
 그런대도 다음 날 아침에 나가 보면 덩굴손까지 흘러나와  
 허공을 감아쥐고 바지랑대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젠 포기하고 되돌아올때도 되었거니 하고  
 다음 날 아침에 나가 보면 가냘픈 줄기에 두세 개의 종까지  
 매어 달고는  
 아침 하늘에다 은은한 종소리를 퍼내고 있는 것이다  
 이젠 더 꼬일 것이 없다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우리의 아픔도 더 한 번 길게 꼬여서 푸른 종소리는 나는  
 법일까.

- 송수권, 「나팔꽃」 -

\* 바지랑대: 빨랫줄을 받치는 긴 막대기.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한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 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뒀 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 도반(道伴): 함께 도를 닦는 벗.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  
 희망은 기쁨보다 분노에 가깝다  
 나는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 본 적이 없다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  
 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

희망에는 절망이 있다  
 나는 희망의 절망을 먼저 원한다  
 희망의 절망이 절망이 될 때보다  
 희망의 절망이 희망이 될 때  
 당신을 사랑한다

- 정호승,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 선생님이 걸어오신다  
회초리를 들고서

선생님은 낙타처럼 늙으셨다  
늦은 봄 햇살을 등에 지고  
낙타는 항시 추억한다  
—옛날에 옛날에—

낙타는 어린 시절, 선생님처럼 늙었다  
나도 따뜻한 봄볕을 등에 지고  
금잔디 위에서 낙타를 본다

내가 여원 동심의 옛이야기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음직한 동물원의 오후

- 이한직, 「낙타」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청계천 7가 골동품 가게에서  
나는 어느 황소 목에 걸렸던 방울을  
하나 샀다.

그 영롱한 소리의 방울을 딸랑거리던  
소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지만,  
나는 소를 몰고 여름 해 질 녘 하산하던  
그날의 소년이 되어, 배고픈 저녁연기 피어오르는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다.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의  
골목에선 지금, 삼륜차가 울려 대는 경적이  
저자바닥에 따가운데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 소리는  
돌담 너머 옥분이네 안방에  
들릴까 말까,  
사립문 밖에 나와 날 기다리며 섰을  
누나의 귀에는 들릴까 말까.

- 이수익, 「방울 소리」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

그는 그리움에 산다.  
 그리움은 익어서  
 스스로도 견디기 어려운  
 빛깔이 되고 향기가 된다.  
 그리움은 마침내  
 스스로의 무게로  
 떨어져 온다.  
 떨어져 와서 우리들 손바닥에  
 눈부신 축제의  
 비할 바 없이 그윽한  
 여운을 새긴다.

2.

이미 가 버린 그날과  
 아직 오지 않은 그날에 머물른  
 이 아쉬운 자리에는  
 시시각각의 그의 충실만이  
 익어 간다.  
 보라,  
 높고 맑은 곳에서  
 가을이 그에게  
 한결같은 애무의  
 눈짓을 보낸다.

3.

농칠 듯 농칠 듯 숨 가쁘게  
 그의 꽃다운 미소를 따라가며는  
 세월도 알 수 없는 거기  
 푸르게만 고인  
 깊고 넓은 감정의 바다가 있다.  
 우리들 두 눈에  
 그득히 물결치는  
 시작도 끝도 없는  
 바다가 있다.

- 김춘수, 「능금」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제부터  
이 잉겔볼 같은 그리움이  
텅 빈 가슴속에 이글거리기 시작했을까

지난여름 내내 앓던 몸살  
더 이상 견딜 수 없구나  
영혼의 가마솥에 들끓던 사랑의 힘  
캄캄한 골방 안에  
가들 수 없구나

나 혼자 부둥켜안고  
뒹굴고 또 뒹굴어도  
자꾸만 익어 가는 어둠을  
이젠 알알이 쏟아 놓아야 하리

무한히 새파란 심연의 하늘이 두려워  
나는 땅을 향해 고개 숙인다  
온몸을 휩싸고 도는  
어지러운 층만 이기지 못해  
나 스스로 꺾질을 부순다

아아, 사랑하는 이여  
지구가 쪼개지는 소리보다  
더 아프게  
내가 깨뜨리는 이 홍보석의 슬픔을  
그대의 뜰에  
받아 주소서

- 이가림, 「석류」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홍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넌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금이 문제리,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들어 내고  
손발 닳은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面)들아.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그러다 금시  
절로 면(面)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면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本)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 박재삼, 「홍부 부부상」 -

[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월은 또 한 고비 넘고  
 잠이 오지 않는다  
 꿈결에도 식은땀이 등을 적신다  
 몸부림치다 와 닿는  
 둘째 놈 애린 손끝이 천 근으로 아프다  
 세상 그만 내리고만 싶은 나를 애비라 믿어  
 이렇게 잠이 평화로운가  
 바로 뒤고 이불을 다독여 준다  
 이 나이토록 배운 것이라곤 원고지 메꿔 밥 비는 제주  
 쫓기듯 붙잡는 원고지 칸이  
 마침내 못 건널 운명의 강처럼 넓기만 한데  
 달아오른 불덩어리  
 초라한 몸 가릴 방 한 칸이  
 망망천지에 없단 말이나  
 웅크리고 잠든 아내의 등에 얼굴을 대본다  
 밖에는 바람 소리 사정없고  
 며칠 후면 남이 누울 방바닥  
 잠이 오지 않는다  
 - 김사인, 「지상의 방 한 칸-박영한 님의 제(題)를 빌려」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 다오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황혼 속에 고향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 있는 주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 다오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 다오  
 확장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나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 다오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 다오  
 놀라울 때는 다만  
 <아!>라고 말해 다오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 다오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가문 날씨에 관하여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이야기해 다오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 김광규, 「상행」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별거벗고 언 땅에 꽃혀 자라는

초록의 겨울 보리,

생명의 어머니도 먼 곳

추운 몸으로 왔다

진실도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

겨울나무들을 보라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는다

잎은 떨어져 먼 날의 섭리에 불려 가고

줄기는 이렇듯이

충전 부싯돌임을 보라

금 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열두 대문 다 지나온 추위로

하얗게 드러눕는

함박눈 눈송이로 온다

- 김남조, 「생명」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추위가 칼날처럼 다가든 새벽  
 무심히 커튼을 젖히다 보면  
 유리창에 피어난, 아니 이런 황홀한 꿈을 보았나  
 세상과 나 사이에 밤새 누가  
 이런 투명한 꽃을 피워 놓으셨을까  
 들녘의 꽃들조차 제 빛깔을 감추고  
 씨앗 속에 깊이 숨죽이고 있을 때  
 이내 스러지는 니르바나의 꽃을  
 저 얇고 날카로운 유리창에 누가 새겨 놓았을까  
 허긴 사람도 그렇지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자리에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서지  
 새하얀 신부 앞에 붉고 푸른 색깔들 입 다물듯이  
 들녘의 꽃들 모두 제 향기를  
 씨앗 속에 깊이 감추고 있을 때  
 어둠이 스며드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누가 저토록 슬픈 향기를 새기셨을까  
 한 방울 물로 스러지는  
 불가해한 비애의 꽃송이들을

- 문정희, 「성애 꽃」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파리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날개 휘젓던 공간밖에 믿을 게 없어  
 날개의 길밖에 믿을 게 없어  
 천장에 매달려 잠자는 파리는 슬프다  
 추락하다 잠이 깨면 곧 비행할 포즈  
 헬리콥터처럼 활주로 없이 이착륙하는 파리  
 구더기를 본 사람은 알리라  
 왜 파리가 높은 곳에서 잠드는가를

저 사내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지구의 밑부분에 집이 매달리는 시간  
 나는 바닥에 엎드려 자는데  
 저 사내는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잔다  
 발 붙이고 사는 땅밖에 믿을 게 없다는 듯  
 중력밖에 믿을 게 없다는 듯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잠드는 저 사내는 슬프다  
 어떤 날은 저 사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늦게 거꾸로 쭈그려 앉아 전화를 걸기도 한다  
 저 사내처럼 외로운 사람이 어디 또 있나 보다

- 함민복, 「오래된 잠버릇」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문 하나 없던 낡은 월세 자취방.  
 한낮에도 어둠이 빠져나가지 못하던 방.  
 아침에 퇴근하여 햇빛을 받고 들어가면  
 직사광선이 일제히 꺾이어 흩어지던 방.  
 잠시 눈꺼풀에 낀 잔광도  
 눈을 깜빡거리면 바로 어둠이 되던 방.  
 퀴퀴하고 걸쭉한 어둠이 항상 고여 있던 방.  
 방에 들어서면 눈알이 어둠 속에 깊이 박혀  
 이리저리 굴러도 잘 돌아가지 않던 방.  
 어둠이 보일 때까지  
 어둠 속의 무수한 빛과 색깔이  
 내 눈을 발견할 때까지  
 오래오래 어둠의 내부를 들여다보던 방.  
 자세히 보면 어둠도 환하게 보이던 방.  
 방 안의 온갖 잡동사니들이 큰 숨을 들이쉬며  
 느릿느릿 어둠을 빨아들였다가  
 제 속에 든 빛을 오래오래 발산해 주던 방.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서로 비취 주고 되비취 주며  
 제 안에서 스스로 발광하는 낮은 빛을  
 조금씩 끊임없이 나누던 방.

- 김기택,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환하다」 -